

만민을 변화시키는 권능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필리핀 목회자들, 이들을 만나 보니 만민의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와 축복의 간증이 넘쳤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섭리

예수님께서서는 고통스러운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심으로 사람이 생각으로 짓는 죄를 대속하시고 천국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려면

'들보'란 영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큰 죄성'을 뜻하는데, 이 들보를 빼내면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볼 수 있다.

“주의 은혜로 축복이 넘칩니다”

성결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큰 축복을 받은 필리핀 레이문도 칸델라리아 목사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김현규 형제 간증.

만민뉴스

제742호 2016년 6월 1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제 신앙과 목회 사역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필리핀 목회자들의 고백



Welcome to Manmin Central Church



만민의 사역을 배우고자 지난 5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목회자들은 각종 예배 및 기도회에 참석하고 교회 곳곳을 둘러보며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질병을 치료받기도 하였다(사진 1, 2, 7). 이들 중 대부분은 '2015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참자리를 체험하고 무안단물에 침수해 질병이 치료되는 등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였다(사진 3, 4, 5, 6).

우리 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목회자 및 성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 5월 21일에는 필리핀 목회자들이 6박 7일 일정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신앙서적을 접하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으며 자신의 신앙은 물론 사역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체험하였으며, 만민의 사역에 대해 배우기를 사모해 왔다.

이번 방문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성도와의 만남 시 함께하며 축복기도를 받았고,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은혜의 현장을 목도하였다.

그 밖에도 해수어와 담수어가 공존하는 무안단물수족관과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방송(www.gcntv.org)을 방문하고, 만민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이복님 원장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 **임마누엘 곤잘레스 목사**
(49세, 라구나 시 마카리오 스목회자협회 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기도가 달라졌고 믿음이 성장했으며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제 스스로는 도저히 깨우칠 수 없는 깊은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천국』과 『믿음의 분량』, 『십자가의 도』 등은 제 목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요. 앞으로 만민과 하나 되어 중국 등 전 세계에 널리 이 목사님의 저서들과 성결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대표 설교 ‘십자가의 도’를 다른 목회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는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칠 때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고 있으며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젤마 페인 목사**
(47세, 마라나따교회협회 부총회장)

“5월 22일 저녁예배 때였습니다. 설교 후 이재록 목사님의 전례를 위한 ‘환자기도’를 받았는데, 한 달 동안 계속됐던 목통증이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라며 간증하였다.

또한 “이재록 목사님을 가까이 대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많이 닦으셨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고 계신 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안단물수족관을 보면서 해수어와 담수어가 함께 사는 놀라운 사실에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지요.”라며 첫 방문 소감을 밝혔다.

◆ **메델리노 트리니다트 목사**
(54세, 필리핀 국제 순복음 교회 담임)

“저는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지요.”라며 ‘2015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여 체험한 잊지 못할 감동을 떠올렸다.

“제 생애 처음으로 참자리가 손가락과 이마에 앉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듯이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 하늘에서 수많은 참자리를 내려 보내 주신 것을 목도하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이재록 목사님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지요.”라고 했다.

◆ **엘레리 가르비다 목사**
(48세, 예수 그리스도 국제 축복의 문 교회 담임)

“저는 작년에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한 후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바닷가의 짠물이 단물로 변한 권능의 현장, 무안단물터를 방문해 일곱 번 침수한 뒤 12년 된 당뇨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여덟 살짜리 조카는 제가 전해준 무안단물을 마시고 천식을 치료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맹기열(열대성 전염병)로 입원 중이던 저희 교회 성도는 무안단물을 마신 뒤 열이 내려 퇴원하였습니다.”라며 행복한 간증을 들려주었다.

이 외에도 성결의 복음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축복받고 있다는 레이문도 칸델라리아 목사(4면 참조)를 비롯한 필리핀 목회자들은 만민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삶과 목회 사역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만민을 이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마가복음 15:16~17)

가시면류관을 쓰신 십리

나오는 것을 ‘생각’이라 하는데, 사람마다 지식이 다르기에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행동이 다른 나라에서는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 되기도 하지요. 또한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을 주관하기 때문에 진리와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칭찬을 받으면 사단은 비진리를 주관해 불만이나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만 있으면 사단이 생각을 주관하지 못하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양식 삼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오직 예와 아멘으로 마음에 받아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2. 생각으로 짓는 죄를 근본적으로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에 맞으면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그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마 16:23) 꾸짖으시지요. 이는 스승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육적으로는 지혜롭고 선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며 순종치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

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고후 10:5).

저는 하나님을 만난 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제 병을 고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계명대로 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니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후 생각으로 짓는 죄를 근본적으로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에 악이 있고 세상을 좇는 속성들이 가득하면 육신의 생각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으면 세상 것들을 좇아 취하고 육신의 정욕이 더 깊어지면 육체의 일(갈 5:19~21)을 행하고 싶어집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육의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이지요. 이러한 안목의 정욕 때문에 사람들은 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갑니다. 이생의 자랑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좇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려는 속성’입니다. 이로 인해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며 명예와 권세 등을 취하려고 하지요.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근본적으로 마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3. 장차 천국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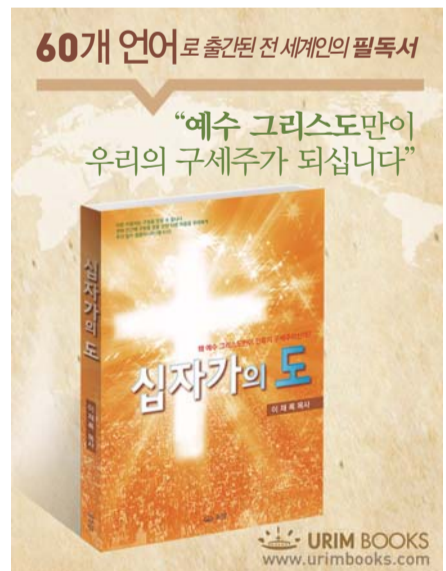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각으로 지은 죄를 사함받고 장차 천국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땅

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주님을 영접하여 진리를 들음으로 죄를 싸워 버리려고 노력한 사람에게 ‘씩지 아니할 면류관’(고전 9:25), 죄를 싸워 버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벤전 5:4), 하나님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성결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약 1:12 ; 계 2:10) 등이 주어집니다. 또한 온전히 성결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의의 면류관’(딤후 4:8)을 받을 수 있지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는 ‘금 면류관’이 나오는데, 이는 온전히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정금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성결되고 충성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면류관을 상급으로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심으로 사람이 생각으로 짓는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깨뜨리고 영의 생각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예수님께서 죄인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면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섭리는 무엇일까요?

1.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날카로운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길고 독한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파고드니 살이 찢기는 고통과 함께 얼굴은 피로 물드셨지요. 이처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신 이유는 사람의 생각으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지식을 담고 활용할 수 있는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느낌과 함께 입력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식이지요. 사람마다 성장한 환경과 배움이 다르고, 같은 환경에서 같은 사람에게 가르침 받아도 각자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그 가치관과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이처럼 지식들이 필요에 따라 재생되어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 요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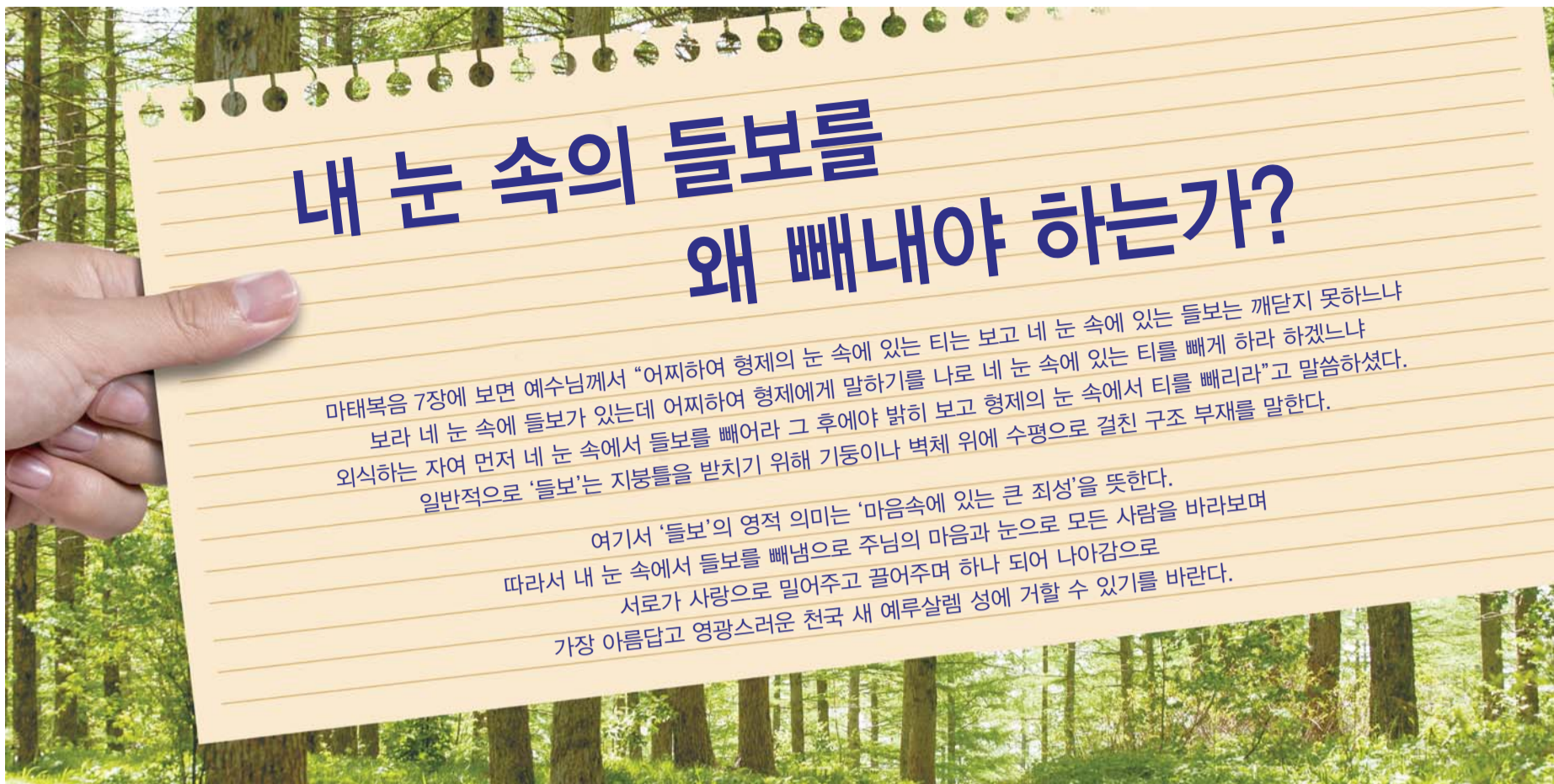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내 눈 속의 들보를 왜 빼내야 하는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셨다. 일반적으로 ‘들보’는 지붕틀을 받치기 위해 기둥이나 벽체 위에 수평으로 걸친 구조 부재를 말한다.

여기서 ‘들보’의 영적 의미는 ‘마음속에 있는 큰 죄성’을 뜻한다. 따라서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냄으로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서로가 사랑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하나 되어 나아감으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들보’는 비판과 헤아림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

‘비판’이란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따져 말하는 것으로 대개 상대의 나쁘고 그른 면 곧 부정적인 면을 드러낼 때 사용한다. 또 ‘헤아림’이란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라고 짐작해 마음대로 추측하고 사실과 상관 없이 그것을 옳게 여기는 것이다.

이처럼 비판하고 헤아리는 사람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곧 마음 안에 큰 죄악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보아도 덮어주지 않고 곧잘 드러내어 지적하려 한다.



물론 상대를 바로 잡아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지적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악 속에서 지적하게 되니 상대에게 깨우침을 주기 보다는 고통을 주고 실족시킬 수 있다.

들보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대부분 깨우쳐 줘도 자신과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권면을 받으려 하

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며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깨우치지 못해 여전히 상대를 비판하고 헤아리는 말을 하게 된다.



그러나 내 안에 영적인 사랑이 있으면 상대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거만하게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미움이나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간다. 들보가 없으니 상대의 좋은 점만 보이고 그 신앙에 맞춰 이해하며 상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해 주게 된다.

따라서 상대의 티가 보인다는 것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야 한다. 그럴 때 마음의 눈이 밝아져 영육 간에 모든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엡 1:18~19).

‘들보를 빼낸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큰 죄성을 뽑아 버린다는 의미

마음에 있는 큰 죄성을 빼내 버리면 작은 죄성들도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마치 나무의 큰 뿌리가 뽑힐 때 잔뿌리들이 뽑혀 나오는 것처럼, 가장 버리기 힘든 큰 죄성을 먼저 집중적으로 뽑아 버리면 작은 죄성들이 자연히 뽑히는 것이다. 이처럼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낸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큰 죄성을 뽑아 버린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미움이라는 죄성을 뽑아 버리고 사랑으로 채운다면 시기나 질투 같은 죄성들은 사라진다. 따라서 ‘언제 마음의 죄성을 다 버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만일 집에서 들보를 빼내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가장 버리기 힘든 죄성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버려 나가면 신속히 변화되어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면 설령 상대의 티가 보인다 해도 판단,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 진실한 사랑으로 권면하기 때문에 상대도 감동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될 수 있다.

예전에 죄를 많이 지어 죄성이 깊이 자리 잡았다면 그만큼 더 힘써 노력하며 열심히 버려가야 한다. 변개함 없이 행해 나갈 때 결국 그 죄성이 벗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은 물로 가득한 그릇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그 물


은 맑아진다. 이처럼 마음의 죄성도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행함으로 계속 채워 나가면 그 죄성이 벗어지고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검은 물에 깨끗한 물을 붓다가도 다시 검은 물을 붓고 또다시 깨끗한 물 붓기를 반복한다면 검은 물이 맑은 물로 바뀔 수 없다. 마찬가지로 죄성을 빼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여전히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죄성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했다. 즉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낸 사람은 어떤 악이 나올 리 없고,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한다. 모든 것을 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간혹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악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 없다(요 3:20).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재판장이시요, 피조물인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이다. 따라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악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쌓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약 4:11).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 6.12~ 6.18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천국 1-6 ■ 의와 인과 신 1
- 지옥 1-2 ■ 사랑장 18-20
- 심계명 10 ■ 믿음의 분량 27
- 헛되고 헛되니 3 ■ 공간과 차원 1-4
- 창세기 강해 51-55 ■ 일곱교회 14-19
- 죽은자를 위한 세례 1-2 ■ 선 7
-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 ■ 전도 1-2

GCN TV설교


- 팔복 11 (이수진 목사)
-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명목사)
- 마음 (이희선 목사)
- 용기 강해 16 (신동초 목사)
- 열재앙 19 (정구영 목사)
- 응답과 축복 (김수경 목사)
-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임학영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17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49
- 내 마음의 찬양 26
- 창조와 과학 4 ■ English 7
- 모두 드러요 45 ■ 뷰티풀 라이프 7
- 즐거운 요리 16 ■ 흥겨운 소리 4
- 옛날 옛적에 14 ■ 플로리스트 5

해외성회 프로그램

- 뉴욕 연합대성회 3
- 믿음으로 걸어온 길 4
- 회상 시즌2 2



“성결의 복음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축복받고 있습니다”

레이문도 칸벨라리아 목사 (43세, 필리핀 금 같은 믿음교회)



저는 목회를 한 지 19년이 되었지만 2년 전만 해도 양떼를 갈무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가 매우 컸습니다.

2015년 2월, 저는 임마누엘 곤잘레스 목사님을 통해 은혜로운 세미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대표 설교 ‘십자가의 도’ 외에 ‘레위기 강해’, ‘믿음의 분량’ 등의 말씀을 까비데만교회 담임 조찬형 목사님이 전하셨는데 참으로 명쾌하게 풀어주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믿음의 분량』 등을 읽으면서 성경에 근거한 순수한 복음에 감동이 되었지요.

특히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와 마음에서 죄악을 벗어버리는 마음의 할례 등 성결을 강조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천국의 소망을 더해 주었지요.

지난해 8월 초, 필리핀 목회자 분들과 함께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전국이 짙은 안개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음에도 수련회 장소는 참으로 시원하고 상쾌하였습니다.

천상의 바람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잡자리 떼가 내려와 몸에 앉는 신기한 체험을 하였고, 세계 각국에서 온 만민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섬기는 겸손한 모습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만민중앙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매우 감사했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온 뒤 교회 사역은 물론 제 신앙에도 큰 변화가 있었지요. 기도생활이 달라졌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무장해야 할지를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결의 복음에 확신을 갖고

담대히 전할 수 있었지요. 은혜받은 성도들의 신앙이 바뀌니 그들의 삶에도 축복이 넘쳐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보노라면 저 또한 너무 행복합니다.

2016년 5월, 저는 필리핀 목회자 분들과 함께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오직 기도로 사시며 성도들을 생명 다한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겸손하신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물론,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했고 바닷고기와 민물고기가 공존하는 무안단물수족관도 관람하면서 권능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아내도 함께 왔는데, 다니엘철야 기도회 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듯했고, 만민찬양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함 속에 눈물로 기도하였다는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만민중앙교회를 본받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참된 스승을 만나 귀한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며 영혼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살아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전국 펜싱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김현규 형제 (19세, 학생주일학교 고등부 3학년)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온 저는 주 안에서 성장하여 중학교 2학년 때 펜싱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했는데, 학교 수업 후에 고된 연습이 밤까지 이어질 때면 지치고 힘든 마음에 포기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고비를 이길 때마다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올해 고3 수험생이 된 저는 목표한 ‘한국체육대학교’ 진학을 위해 좋은 성적을 내는데 간절했습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룬 성도들의 수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지요. 이전에는 학업과 연습을 병행하니 기도 생활을 할 틈이 없다고



만 생각했는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러한 상황과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신다는 마음이 드니 잠시 침대 위에 무릎을 꿇거나 때론 걸으면서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올해 첫 경기인 ‘제45회 회장배 전국남녀 펜싱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기할 때뿐 아니라 훈련할 때에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ARS(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를 늘 받곤 하였습니다. 결과는 금메달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자신감이 생겼지요.

4월에 열린 ‘제10회 한국 중고펜싱연맹 전국 남녀종별 선수권대회’에서도 지난달 대회 때처럼 하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경기 전, 코치님이 휴대폰을 걷으

라고 하셔서 경기장에서 당회장님의 자동응답서비스 기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빌려서 기도를 받을까 생각도 했지만, ‘지난번 시합 때 금메달을 땀는데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기도를 받지 않고 별 생각 없이 그냥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32강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졌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는 마음이 컸구나!’ 하는 깨우침이 왔지요.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열린 ‘제54회 전국 남녀종별 펜싱선수권대회’에서는 진학할 대학을 결정짓는 마지

막 시합이고, 4월 경기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당회장님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받았고, 시합을 위해 기도받은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하루 종일 반복해 들으며 경기에 임했지요. 경기가 술술 잘 풀리고 신기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 몸이 가벼웠습니다. 왠지 모를 힘이 나고 집중도 잘 되었지요.

결과는 고등부 남자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 두 개의 메달 획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에도 감사



▲ 지난 5월, 대회에서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김현규 형제(오른쪽)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릉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광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잔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6355-1928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